

朝鮮時代 風俗志에 나타난 兒童養育 考察

— 東國歲時記 · 洌陽歲時記 · 京都雜志를 中心으로 —

Childrearing in the Customs-Records of the Chosen Dynasty Period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愼 良 宰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Yang Jai, Shin

本 研究는 韓國傳統社會의 兒童養育을 알아보기 爲해 朝鮮時代의 歲時風俗을 기록한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志를 문헌분석하였다. 분석결과, 朝鮮時代 歲時風俗 가운데 아동이 관련된 풍속은 주로 봄철과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풍속을 통해 아동의 衣食住나 健康維持에 요구되는 物理的 側面의 養育, 그리고 아동의 心理的 側面의 養育을 信仰儀禮化함으로써 兒童을 保護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I. 序 論

1. 問題提起

Gecas(1976)는 兒童養育을 社會化와 保護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보았고, LaRossa와 Reitzes(1993)는 이를 支持와 統制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支持라 함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혹은 경제적 보육에 관한 노력을 뜻하며, 統制란 아동을 훈육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아동행동을 형성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Holden과 Edward(1989)는 아동양육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이에 관한 연구는 양이나 주제의 광범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제가 반복되어 연구되고 있는 양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부모의 統制方式에

관한 것으로 통제, 훈육, 벌에 대한 부모의 지향성을 묻는 내용과, 권위적 혹은 허용적 양육의 견해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아동에의 수용 혹은 거부 에 관한 지향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가 아동양육에 관한 균형적인 표집을 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동향으로 인하여 그간의 아동양육 연구에는 訓育方式이나 統制方式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 아동의 심신 유지에 필요한 保護나 支持 활동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양육행동 특성이나 아동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는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데 비해서, 이러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비교적 등한시해 왔으며(Belsky, 1984),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文化的 脈絡(Nsamenang, 1992)에 대한 고려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아동양육 연구에 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서구중심이어서 (Grusec & Lytton, 1988), 비서구적 사회에서는 현대적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설명력이 있을 뿐 전통적 부문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Moghaddam, 1987), 아동양육의 중요한 요인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지녀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아동양육의 문화적 맥락은 역사전개과정 안에서 傳承되어 形成된 것인 바, 이 시점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선 한국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아동양육에 관한 규명이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禹英姬, 1989; 柳點淑, 1987, 1991; 孫直銖, 1981, 1993; 金玉姬, 1985; 李貞德·宋洵, 1993)은 대부분 兒童 教育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현대 아동 연구에서나 마찬가지로 아동양육의 두 차원 중에서 주로 統制 차원에 속하는 내용에 국한 되어 있어 양육의 保護나 支持 차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高麗史를 중심으로 하여 高麗時代의 아동양육을 고찰한 前 研究(愼良宰, 1994)는 고려사가 王朝史 中心의 문헌이기 때문에 아동양육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에 아동양육에 관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풍속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歲時風俗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양육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兒童의 心身 維持에 필요한 양육활동인 保護나 支持 차원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보고자 한다.

세시풍속은 일년중 계절에 따라 慣習으로 반복하는 生活樣式을 말한다(金惠善·朴惠仁, 1993: 214). 이러한 세시풍속은 원시부족사회 때부터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공동체의 위기나 긴장을 맞을 때 일어나는 일차적인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평정시켜 줄 祭儀가 필요했고, 더 나아가 많은 수확과 자손 번창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의를 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의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행해지면서 계절제의로서 세시풍속이 되었다(김용덕, 1994: 43~44)고 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信仰儀禮行事이므로 이를 행하는 사람들의 信念體系를 파악하게 해주며, 또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 적절히 대처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生活樣式이므로 당시의 生活相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에서 아동이 관련된 풍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당시 아동을 위해서 행해졌던 養育活動과 그 이면에 있는 아동양육에 관한 信念體系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의 세시풍속지를 분석하여 아동양육 특히 아동의 心身維持를 위한 兒童養育의 保護나 支持차원의 내용을 해명해 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兒童關聯風俗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아동양육을 위해 物理的 側面에서 어떤 保護活動이 행해졌는가? 셋째, 아동양육을 위해 心理的 側面에서 어떤 保護活動이 행해졌는가?

2. 研究方法

전술된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을 기술한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東國歲時記의 저자는 朝鮮 正祖·純祖때 학자인 洪錫謀인데, 중국의 荆楚歲時記를 모방하여 우리 풍속을 정리해서 동국세시기를 저술하였다. 이 책 앞에 李子有의 서문을 근거로 볼 때, 책의 완성은 1849년(憲宗 19년)으로 보여진다. 洌陽歲時記의 저자는 正祖때 학자인 金邁淳으로 주로 서울의 풍속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책 맨끝에 있는 저자의 발문에 의하면 1819년(純祖 19년)에 완성된 것으로 동국세시기 보다 30년 정도 앞서서 저술된 책이다. 京都雜志는 正祖때 학자 柳得恭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며,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 제 1권에는 우리나라의 의복·음식·주택 등 제반 문물제도를 19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하고 있고, 제 2권에는 서울의 세시풍속을 약술하고 있는데 특히 제 2권은

동국세시기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완성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正祖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석은 1923년 崔南善의 光文會가 활자본으로 간행한 朝鮮光文會藏本을 사용하였고, 李錫浩(1991)가 번역한 朝鮮歲時記를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東國歲時記, 洸陽歲時記, 京都雜志 안에서 兒童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예를 들면 기록 내용 중에 幼, 兒, 童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로, 이를 아동양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들 사례를 物理的 側面과 心理的 側面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 범주 모두에 속하는 사례들은 가장 중심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의 개념을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화나 통제 영역 보다는 아동의 삼신 유지에 필요한 保護나 支持領域에 관한 활동으로 좁혀 사용하고자 하며,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호나 지지영역을 物理的 側面과 心理的 側面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물리적 측면은 아동의 신체적·생리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 제공과 아동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양육활동을 말하며, 심리적 측면은 아동에게 안전감, 소속감, 사랑, 자존감 등을 주어 심리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양육활동을 말한다.

II. 本 論

1. 兒童關聯 朝鮮 歲時風俗의 概觀

음력 정월에서 삼월까지는 봄철로서 한해가 시작되는 시기다. 특히 음력으로 정월은 아직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는 한 해에서 또다른 한 해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Leach(1976: 35)가 말한 A에서 not-A로 넘어가는 境界地域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계지역은 신성한 영역으로 不淨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그해의 풍년과 일년 내내 집안의 평안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근신과 금기가 강조되는 신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년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정을 淨化시키려는 여러 기제가 아동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적 기제들이 이 계절이 되면 반복해서 행해지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물질의 제공과 심리적 보호를 儀禮의 規範안에 묶어둠으로써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력 4, 5, 6월은 여름철로서 일기가 불순하고 무더워서 신체가 허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이어서, 歲時風俗에는 夏節 健康과 관계되는 慣習이 전해지고 있다(任東

표 1. 세시풍속지에 나타난 아동관련 풍속

	東國歲時記	洸陽歲時記	京都雜志
春季	설빔, 夜光鬼, 僧侶의 떡, 祈豐의 山間俗, 계옹치기, 葫蘆, 齒較, 百家飯, 연날리기, 回回兒, 姑姊妹, 줄꿍기, 柳笙 擲銅錢, 邊戰, 祈豐의 關東俗	떡국, 연날리기, 葫蘆	夜光鬼, 僧侶의 떡, 계옹치기, 葫蘆, 百家飯, 연날리기, 苦苦妹, 邊戰
夏季	燃燈, 石楠葉떡·黑豆·미나리, 水缶, 鳳仙花, 色扇, 菖蒲湯, 端午빔	燃燈, 느티떡·콩, 水缶	燃燈, 水鼓, 色扇, 端午빔, 菖蒲湯
秋季			
冬季	臘, 守歲	守歲	臘, 守歲

權, 1989 : 29). 따라서 아동보호의 차원에서 봄철과 여름철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관련된 세시풍속의 사계절 분포에서도 이러한 면이 봄철과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 있다.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에 나타난 아동이 관련된 풍속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표 1과 같다.

2. 物質的 側面

전술한 바와 같이 養育의 物理的 側面은 아동의 身體的·生理的 基本 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 物質 提供과 이를 통한 아동의 健康 保存 및 成長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계절별로 이들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음력 1, 2, 3월의 봄철에 세시풍속을 통해서 행해지는 양육의 물리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 ① 男女老少幼幼者皆着新衣曰歲粧(東國歲時記 元日)
- ② 鬼名夜光...鞋主不吉 小兒畏之藏鞋滅燈早 廳壁上懸飾 夜光計其孔不盡 鷄鳴乃去...藥王之音轉也 藥王像醜 故怖兒使之早宿(京都雜志 元日)¹⁾
- ③ 又用一餅換俗二餅 俗得僧餅飼小兒 以爲善債(東國歲時記 元日)²⁾
- ④ 義州俗 年少男女 清晨嚼飴糖 謂之齒較(東國歲時記 上元)
- ⑤ 小兒春病驚瘳者 乞上元百家飯 騎白對犬而坐 與犬一匙自噉一匙 不復病(東國歲時記 上元)³⁾

①은 元日 歲粧에 관한 것으로, 남녀 아동 모두에게 새옷을 입힌다. 이는 아동의 의생활에 기본적인 물질을 공급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새해에 일상적인 때(汚)를 淨化시키기 위해서 깨끗한 새옷을 입게(崔吉城, 1983 : 284)하는 상징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②는 夜光鬼에 의한 속설에 의해서

아이들을 일찍 잠을 들게 한다는 내용이다. 즉 속설에 의하면 밤에 사람의 집에 들어와 신을 훔치기를 좋아하는 夜光이란 귀신이 있어, 신을 잃어버린 신주인은 불길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잔다. 그리고 마루 벽 위에도 체를 걸어 두면 夜光이 와서 그 구멍을 세다가 못세고 닭이 울면 도망간다고 한다. 京都雜志에서 柳得恭은 夜光은 藥王의 음이 와전된 것으로,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명절을 보내느라고 피곤해진 아동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健康維持 기능을 하며, 체의 구멍은 무수한 눈으로서 光明을 뜻하기 때문에 체의 구멍이 벽사의 힘이 있다고 보아 체를 걸어 두는(李杜鉉·張數根·李光奎, 1983 : 224) 度厄의 기능 또한 있다고 본다. ③에서 속설에 僧의 떡을 얻어 어린 아이에게 먹이면 마마를 곱게 한다 하여⁴⁾ 元일에 僧의 떡을 얻어 먹이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④는 齒較라 하는 上元 풍습으로 義州풍속에 남녀 아동들이 새벽에 엿을 쥔다. 이는 아이들에게 소화하기 쉬운 糖分攝取라는 기능과 더불어 엿을 깨는데 나는 파열음을 통해서 度厄을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祈願하는 신념체계를 알 수 있다. ⑤는 上元 풍속으로, 봄을 타 살빛이 검어지고 아위어 마르는 아이는 정월 보름날 백집(百家)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 개에게 한 손갈 먹이고 자기도 한 손갈 먹게 하여 그런 병을 앓지 않게 한다.

①에서는 아동에게 행한 의생활의 일 면모를 볼 수 있으며, ③, ④, ⑤에서는 아동에게 행해진 식생활의 일면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②에서는 들뜨기 쉬운 명절에 아동의 건강조절을 위한 보호의 일면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새옷을

1) 東國歲時記에는 俗說鬼名夜光 是夜降于人家 徧穿兒鞋足樣合 則輒穿去鞋主不吉 故群兒畏之 皆藏鞋滅燈而宿 懸飾於廳壁或階庭間 謂以夜光神數飾孔不盡 仍忘穿鞋鷄鳴乃去 夜光未知何鬼 而或藥王之音轉也 藥王像醜 可令怖兒耳(東國歲時記 元日)로 기술되어 있다.

2) 京都雜志 元일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3) 京都雜志 上元に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4) 佛教의 25菩薩의 한 분으로 藥王菩薩이 있는데, 이 보살은 항상 大悲의 약으로 일체 중생의 惑業을 치료하고 즐거움을 주는데에 自在를 얻는다 한다. 그래서 약왕이라 하면 약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이 민간에 전해져 불교에 있어서 藥王菩薩과 僧侶가 같은 菩薩道를 걷는 수행자라는 점에 약왕보살의 치료력과 승려가 동일시되어 병의 치유효과를 기대되었으리라 본다.

입혀 淨化시킴으로써 淨한 상태에 두고자 하며, 체의 구멍은 무수한 눈으로서 광명을 뜻하기 때문에 체의 구멍이 벽사의 힘이 있다고 보아 체를 걸어 두는 관행, 엿을 깨는 과일음을 통해서 度厄을 도모하였던 풍속들은 당시의 상징체계로 해석된 아동의 건강과 편안함에 대한 양육 활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양육의 내용은 신앙의례의 차원에서 행해지므로, 이러한 의례의 규범안에서 아동은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夏季歲時風俗에서도 나타나 있다.

- ① 至燃燈之夕…兒童各於燈竿下 設石楠葉飯餅蒸黑豆烹芹菜 云是佛辰茹素延客而樂 又泛瓢於盆水 用帚柄叩 而爲眞率之音 謂之水缶戲(東國歲時記 四月 八日)⁵⁾
- ② 女娘及小童 皆以鳳仙花調白礬 染指甲(東國歲時記 四月 月內)
- ③ 諸色爲婦人小兒所把…色扇爲婦女兒童所持 又有色紙竹輻闊大爲輪扇 有柄張之如傘 作小兒遮陽之具(東國歲時記 五月 端午)⁶⁾
- ④ 男女兒童取菖蒲湯頰面 皆着紅線新衣(東國歲時記 五月 端午)⁷⁾

①은 사월초파일 풍속에 관한 것이다. 釋迦誕生日是 간소한 음식으로 손님을 맞아 즐기는 뜻으로, 저녁에 아이들은 각각 등대 밑에서 석남의 잎을 붙인 증편(혹은 느티떡)과 볶은 검은 콩(소금에 볶은 콩)과 삶은 미나리 나물을 벌여 놓고 즐기고, 또한 물동이에다가 바가지를 얹어 놓고 빗자루로 두드리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소리를 내는 水缶를 하며 논다고 한다. 여기서 석남잎⁸⁾을 사용한 증편

혹은 느티떡⁹⁾, 볶은 검은 콩 혹은 소금을 넣어 볶은 콩, 미나리 등 여름철 健康維持에 필요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사월 중의 풍속에 관한 것이다. 여자아이들과 어린애들이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궂어서 손톱에 물들인다. 이를 상징적 개념체계로 파악해 본다면 붉은 색은 陰陽說로 보아 陽한 것(김용덕, 1994 : 50)이므로 질병을 일으키는 陰한 것에 대한 度厄의 의미를 지니며, 또한 사용되는 백반의 약효¹⁰⁾로 보아 겨울을 나고 봄을 지내면서 갈라지고 툰 손에 대한 止血과 消毒의 治療效果를 가져서, 다가오는 습한 여름철에 상처가 덧나는 것을 防止하게 하는 기능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단오절 부채에 관한 풍속에 관한 것이다. 色扇은 부녀자나 아이들이 갖고, 또 색종이를 바르고 덧살의 폭이 넓고 큰 輪扇에는 자루가 달려 있어 그것을 퍼편 마치 우산같아, 그것을 어린이들이 햇빛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東洋의 自然科學的 思考方式인 五行說¹¹⁾로 본다면(馮友蘭, 1977 : 185) 木剋土¹²⁾이며 木인 風은 土인 濕氣를 剋하게 되어 있으므로¹³⁾, 바람(風)을 일으키는 부채는 다가올 여름 장마나 濕氣를 몰아주므로 여름철 衛生이나 장마대비에 요긴한 물건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풍속을 통하여 생활관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④는 단오절 풍속으로 남녀 어린이들이 菖蒲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10) 백반은 明礬을 구워서 만든 덩어리로 한의학에서는 백반의 가루를 止血 收斂藥으로 쓴다.

11) 오행설은 오행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그 구조를 설명하려는 중국사상으로, 오행은 첫째 水, 둘째 火, 셋째 木, 넷째 金, 다섯째 土이다. 洪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물은 축축하여 아래로 스며들고, 불은 위로 타올라가고, 나무는 휘어지기도 하고 곧아지기도 하고 쇠는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흙은 종자를 심어 오곡을 수호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오행설은 오행을 정태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우주간의 상호작용하는 힘으로서 생각한다.

12) 五行은 相生과 相剋의 역동적 관계를 갖는다. 五行의 相生은 오행이 순환해서 서로 생하여 주는 이치로 즉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의 理致이다. 五行의 相剋은 오행이 서로 이기는 이치로 즉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의 이치이다.

5) 京都雜志에는 又童子設盆水于燈竿下 泛瓢用帚柄叩其背 爲眞率之音 號爲水鼓(京都雜志 四月 八日)라고 되어 있으며, 洙陽歲時記에는 兒童就竿布席設 楸葉餅鹽蒸豆 覆瓢盆水中 輪流考擊以爲樂 名曰水缶(洙陽歲時記 四月 八日)라 되어 있다.

6) 京都雜志에는 간략하게 紅黃與婦人小兒(京都雜志 端午)로 기술되어 있다.

7) 京都雜志에는 小兒女著紅線新衣 菖蒲湯頰面(京都雜志 端午)로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8) 석남은 만병초로 불리기도 하는데, 잎은 만병엽이라 하여 약재로 쓰인다.

9) 느티떡은 쌀가루에다 느티나무의 연한 잎을 섞어서 찐 시루떡으로, 느티나무는 수명이 길고 어린 잎은 먹을 수 있는 낙엽활엽수이다.

입는다. 葛蒲¹⁴⁾는 쑥과 藥效로 인하여 여름철 건강유지에 기여를 하며, 청과 홍의 옷을 度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五行에서 청색은 방위로 東方이며, 붉은 색은 南方에 해당하여 동방과 남방은 陽氣가 왕성하므로¹⁵⁾, 동방의 청색과 남방의 적색은 陽의 색이므로 陰鬼를 물리치는 색으로 여겼던(김용덕, 1994 : 50) 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력 7, 8, 9월에 해당하는 가을철의 세시 풍속 중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기록된 내용을 분석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음력 10, 11,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철에는 12월의 臘平일의 풍속에 나타나 있다. 東國歲時記에 又捕黃雀飼小兒善痘 閭巷間是日張羅挾彈 又許放銃以捕之(東國歲時記十二月 臘)¹⁶⁾라 했는데, 참새를 잡아 어린이를 먹이면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항간에서는 납일에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하고 활을 쏘아 잡기도 하는데 이 날은 총을 쏘아 잡아도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에게 겨울철에 걸땀되기 쉬운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게 하여 成長과 병에 대한 抵抗力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의례화시킴으로써 아동이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心理的 側面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에 나타난 아동 관련 세시풍속 중에서 養育의 心理的 側面으로 분류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閭閻間兒小年齒 輒曰今喫餅湯幾碗(洌陽歲時記 正月 元日)

② 渾舍張燈以至廐溷 各點一盞 達夜不睡以守歲 俗云除夜睡雙眉白 小兒甚憚之 或睡 他兒以米粉抹之 擾使對鏡 以爲戲笑(京都雜志 除夕)¹⁷⁾

①은 설날 풍속에 관한 것이다. 즉 항간에서 아이들에게 나이를 묻는데 지금까지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除夕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는 時間觀念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②는 除夕의 守歲라는 風俗에 관한 기록이다. 除夕에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는데 외양간, 변소까지에도 각각 하나의 등잔을 켜놓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속설에 의하면 除夜에 자면 두 눈썹이 샌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를 꺼리게 되는데, 혹 자는 애가 있으면 다른 애가 쌀가루를 반죽하여 발라주고 깨워 거울을 보라고 하면서 웃는다. 除夕에 행하는 이런 풍습은 아이들에게 시간 경과의 의미를 학습하게 해준다. ①과 ②는 아동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관념과 시간 경과의 의미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쉽게 내면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아동에게 시간개념의 학습과 더불어 심리적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① 男女年值羅睺直星者 造芻靈方言謂之處容 廣銅錢於顯中 上元前夜初昏 棄于塗以遺厄 群童遍向門外呼出處容 得便破顯爭錢 徇路而打擊之 謂打芻戲…俗信卜說 年值日月直星者 剪紙

17) 東國歲時記에는 諺傳 除夜睡兩眉皆白 小兒多見隔不睡 或有睡者 他兒以粉抹其眉 擾使對鏡 以爲戲笑(東國歲時記 十二月 除夕)로 되어 있으며, 洌陽歲時記에는 人家…上下老幼限鷄鳴不眠 謂之守歲 童稚困睡 則嚇曰睡除夕雙眉白(洌陽歲時記 十二月 除夕)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기후를 五行으로 나타내면 風은 木, 熱은 火, 濕은 土, 燥는 金, 寒은 水이다.

14) 葛蒲는 특이한 향기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창포의 뿌리를 健忘症, 煩悶症에 약으로 사용한다.

15) 月令에서는 宇宙天地의 구조를 五行 思想에 의해서 기술하고 있다. 中國은 북반구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南方을 熱帶로, 北方을 寒帶로 보고, 四季節을 方位 에다 배치시켜서 여름은 南쪽, 겨울은 北쪽, 봄은 해가 뜨는 東쪽에, 가을은 해가 지는 西쪽에 두었다. 남쪽과 여름은 火氣가 왕성한 방향과 시기이므로 덥고, 북쪽과 겨울은 水氣가 왕성한 방향과 시기이므로 춥다. 이와 마찬가지로 봄은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는 때요, 동쪽은 봄에 배속시켰으므로 木氣는 동쪽과 봄에 왕성하고, 가을은 초목의 성장이 끝나는 荒涼한 때이므로 서쪽은 가을에 배속시켰으므로 金氣는 서쪽과 가을에 왕성하다 이렇게 5氣 가운데 4氣는 설명했고, 土氣는 5氣의 中心이므로 四方의 中心에 자리잡게 하였다.

16) 京都雜志에는 捕黃雀飼小兒善痘 都城中不得私放鳥槍 是日許令捕雀(京都雜志臘平)으로 기록되어 있다.

象日月鉗以木挿屋脊 月出時或燃炬迎之 水直星者 以紙裹飯 夜半投井中禳之 俗最忌處容直星(東國歲時記 上元)¹⁸⁾

② 男女幼少者 自冬佩小木葫蘆青紅黃三枚 如荳狀 用綵絲爲綬 上元前夜半 潛損于道 亦謂消厄(東國歲時記 上元)¹⁹⁾

③ 兒童列書 家口某生身厄消滅字於紙鳶之背 任其所飛 日暮斷其線而放之(東國歲時記 上元)²⁰⁾

④ 糊貼五色紙於竹骨左右 方圓大小制樣不一以柄中挿 小兒弄之當風而轉 號曰回回兒 市多賣之(東國歲時記 上元)²¹⁾

⑤ 用獨繭絲 繫鵝鵝 小兒順風而颺之 號姑姑妹 蒙古語鳳凰也(東國歲時記 上元)

⑥ 計家內子女人口 懸燈 以明亮爲吉 至九日乃止

18) 京都雜志에는 十四日夜結草偶 號處容 顯中藏銅錢 群兒終夜打門喚處容 主人開門擲之 群兒得便極曳 破顯爭錢(京都雜志 上元)로 기록되어 있다.

19) 京都雜志에는 童女佩旋小木葫蘆青紅黃三各一 用綵絲爲綬 上元前夜半 潛損于道消厄(京都雜志 上元)라고 되어 있어 여아의 풍속으로 되어 있으며, 洮陽歲時記에는 兒童以十月初 男放紙鳶 女佩木雕 小葫蘆三枚 至上元夜 鳶飄于空 葫蘆損于道 各繫一文錢 名曰防厄(洮陽歲時記 上元)로 되어 있어 남아는 연날리기로 여아는 호로를 버림으로써 度厄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 東國歲時記에는 每上元前一兩日 水標橋沿河上下 觀交鳶者 簇如堵牆 群童候斷搶絲 或追敗鳶 脫空奔波 險垣越屋 勢莫可遏 人多怖駭 過上元 不復飛鳶라고 기록하여 매년 정월보름 하루이틀 전에 수표교 근처의 개울을 따라 아래위로 연싸움 구경꾼이 담을 쌓은 듯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아이들은 남의 연줄을 끊느라 서있는 자도 있고 혹은 패하는 연을 공중만 보고 쫓아 가느라 방죽을 달리다가 담을 뛰어 넘고 지붕 위를 넘어가기도 하여, 그 형세를 막을 수 없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 하고 놀랐으나,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京都雜志에도 童子書厄字於紙鳶 日暮斷送… 上元前一兩日 水標橋沿河 上下觀交鳶者 簇如堵牆 群童候斷搶絲 或追敗鳶險垣越屋 人多怖駭 過上元後 不復飛鳶(京都雜志 上元)라고 비슷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1) 京都雜志에도 小兒用獨繭絲 繫鵝鵝 順風而颺之 號苦苦妹 蒙古語鳳凰也(京都雜志 上元)라고 하여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東國歲時記 四月 八日)²²⁾

① 은 상원의 제웅치기풍습에 관한 것이다.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에 들면 제웅을 만드는데, 이를 사투리로 처용이라 하는데,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 머리속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보름달 전날 즉 14일 밤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厄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러 아이들이 문밖으로 몰려와 제웅을 내어 달라고 한다. 그것을 얻으면 머리 부분을 파헤쳐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다 내동댕이치는데 이를 제웅치기라 한다. 또한 卜說을 믿어 그해 日直星, 月直星이 命宮²³⁾에 든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서 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거나, 달이 뜰 때 햇불에 불을 붙여 달을 맞이하기도 하며, 또한 水直星이 든 사람은 종이에다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던져 액을 막는데, 풍속에 제웅직성을 제일 꺼린다고 한다. 直星²⁴⁾이 처음으로 드는 나이는 남녀 모두 10대 초로써 사춘기를 곧 맞이하게 되어 심신의 동요가 심한 인생의 위기임을 생각할 때 이같은 類似呪術²⁵⁾은 생활기술로서의 주술이라 할 수 있다(李杜鉉外, 1983 : 236). 이러한 유사주술에 의해서 度厄을 하는 풍속에 ②도 속한다. 이것은 아이들은 겨울부터 작은 나무조롱 새개를 차고 다니는데, 청, 홍, 황색의 각지콩 모양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비단 실로 끈을 만들어 차고 다니다가 14일 밤 밤중에 몰래 길에다 버리면 厄을 막는다고 한다. ③은 연날리기에 관한 것으로, 역시 度厄을 하는 上元 풍속이다. 즉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

22) 京都雜志에는 人家點燈 依子女多少 以明亮爲吉(京都雜志 四月 八日)로, 洮陽歲時記에는 人家則皆以童稚口數爲準로 되어 있다.

23) 生年月日時의 方位

24) 直星은 사람의 행년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맡은 별로서 제웅직성, 土직성, 水직성, 金직성, 日직성, 火직성, 計都직성, 月직성, 木직성의 아홉별로서, 남자는 열살에 제웅직성이 들기 시작하여 열 아홉살에 다시 돌아오고 여자는 열 한살에 들기 시작한다.

25) 주술의 원리를 J.G.Frazer는 類似呪術(law of similarity)과 感染呪術(law of contact)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유사주술이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 다하여 단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바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몸의 厄을 없애버린다는 글자를 연 뒤에 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그 연의 줄을 끊어 버림으로써 厄을 막는다. ①, ②, ③ 모두 度厄에 관한 풍속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아동에게 생활의 안도감을 주어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는 上元에 하던 팔랑개비라는 아동놀이에 관한 것이다. 五色종이에 풀칠을 하여 알팍한 댓가지의 양쪽에 붙이는데, 종이 모양은 모가 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모양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자루 끝에다 그 댓가지의 가운데를 뚫고 못이 돌아가도록 허술하게 박은 뒤에 아이들은 그것을 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거슬러 달리면 뱅글뱅글 돌게 된다. 여기서 五色 종이를 사용하고 바람과 관련된 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五行이 조화롭게 되어²⁶⁾ 특히 큰 바람의 피해없이 豐饒를 祈願하는 신념체계가 내재한 풍속이라 볼 수 있다. 또한 ⑤는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매어 아이들이 바람을 따라 날리는 놀이로, 이것을 姑姑妹라 하는데, 이 말은 몽고어로 봉황이란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생명주실²⁷⁾과 거위²⁸⁾의 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때 健康을 祈願하는 신념이 나타나 있다. ④와 ⑤의 풍속에서 알 수 있듯이 주술적 의미를 지닌 물건을 가지고 놀게 하는 관행에서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아동보호의 신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⑥은 사월 초파일의 燃燈 풍속에 관한 기록이다. 내용을 보면 釋迦誕生日 며칠전부터 각 집에서는 집안 자녀수대로 등을 매달고 그 밝은 것을 길하게 여기며, 이러다가 九일에 가서야 그친다고 되어 있다. 이 燃燈會는 불교문화권에서 널리 성행되어온

佛敎儀禮로서, 新羅時代의 八關會를 열 때부터 시작되어, 高麗時代에 더욱 성하였고 朝鮮時代에도 여전히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傳承되고 있다(睦楨培, 1987: 91~93). 이러한 연등 풍속에서도 역시 아동 보호의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歲時風俗에서 그밖의 兒童參與 風俗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들은 上述된 度厄 혹은 祈福의 의미와는 다른 면에서 兒童支持의 心理的 側面을 담당하고 있다. 즉, 兒童支持에 대한 기능적 의의로서, 우선 성인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놀이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한 지역사회에 肯定的으로 아동이 參與할 수 있는 地位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以放鳶之餘絲 兒童繫石 相對交絲牢引 以爲戲 被斷者負(東國歲時記 上元)
- ② 穴地爲窩 壯幼分隊 擲錢以中窩 後擲王大錢中 其賭中者收其錢以爲勝 誤中與不中者爲負 上元日 此戲尤盛 小兒輩或用破陶爲錢而擲之(東國歲時記 上元)
- ③ 邊戰…城內童豎亦效 而爲之於鍾街琵琶亭等處 城外則萬里峴雨水峴爲邊戰之所(東國歲時記 上元)²⁹⁾
- ④ 峽俗 立多枝木於牛宮之後 掛穀穗綿花 小兒曉起 繞樹而行歌以祝之 至日出(東國 歲時記 上元)
- ⑤ 關東峽俗 群童齊唱百鳥之名 作驅逐之狀 亦是祈穀之意也(東國歲時記 上元)
- ⑥ 兒童折柳枝 作簫築以吹之 謂之柳笙(東國歲時記 三月 月內)
- ⑦ 金海俗 每歲自四月八日 兒童群聚習石戰于城南(東國歲時記 五月 端午)

①은 연을 날려보낸 줄의 남은 부분으로 아이들은 돌맹이를 붙들어매고 서로 실을 교차시켜 세계 잡아당기며 노는데, 줄이 끊어지는 사람이 지는 놀이에 관한 것이다. ②는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어른이나 아이들이 편을 갈라 돈을 그 속에 넣고 큰 동전으로 그 구멍 안의 내기 물건을 맞추는 놀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맞춘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만일 잘못 맞추었거나 맞추지 못한 사람은

26) 오색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청색은 木, 황색은 土, 적색은 火, 백색은 金, 흑색은 水를 나타낸다.

27) 실은 장수를 나타내어 돛상에 실을 올린다.

28) 거위는 밤눈이 밝아서 집지키는 용도로도 사육한다고 한다.

29) 京都雜誌에는 三門外阿峴人飛石相關於萬里峴上…城中群兒亦效而爲之(京都雜誌 上元)라 하여 어른들의 석전을 아이들이 모방하여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는 것으로, 정월 보름날에 이 놀이가 더욱 성하며, 아이들은 흑 사금파리를 돈으로 사용하여 던지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놀이는 목표를 겨냥하여 물건 던지기에 있어 정확성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사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⑥은 삼월 풍속으로 아이들이 버들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도 역시 피리를 만들기까지의 동직에서 날카로운 도구사용을 연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③은 上元 풍습으로 어른들의 邊戰을 아이들이 모방하여 행했던 내용이며, ⑦ 역시 金海 풍속에 4월 초파일부터 아이들이 때로 모여 석전을 연습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놀이들은 성인이 되면 수행하게 되는 賦役, 특히 전쟁부역 동원을 대비한 준비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⑥, ⑦ 모두 성인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놀이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학습하게 하는 문화적 기제를 볼 수 있게 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④는 上元의 산간 지방 풍속에 관한 것이다. 가지를 많이 친 나무를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의 이삭과 목화를 걸어두는데,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이 나무를 싸고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다가, 해가 뜨면 그만둔다. ⑤는 關東산간지방의 상원 풍속이다. 여러 아이들이 일제히 온갖 새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는 시늉을 한다. ④나 ⑤ 모두 풍년 들기를 비는 뜻으로 행해지는 祈豐 風俗이다. 이들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인 세계와 단절시키지 않고, 지역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도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II. 結論 및 論議

본 연구에서는 傳統社會의 아동양육 중에 특히 兒童의 心身 維持에 필요한 保護나 支持 次元에 관한 養育活動을 알아보기 위해서 朝鮮時代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東國歲時記, 洙陽歲時記, 京都雜志의 3 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시풍속에서 아동이 관련된 것으로 기록된 풍속을 보면 주로 봄철과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즉 봄철은 일년의 평안함을 위해서 不淨을 淨化하는 신성한 시기이고, 여름철은 일기가 불순하고 더워서 병약해지기 쉬워 健康에 유의할 때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차원에서 봄철과 여름철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므로 아동이 관련되는 풍속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세시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의 物理的 側面을 보면, 우선 아동에게 필요한 衣生活에 관한 내용으로는 설날 아동 모두에게 새옷을 입히며, 단오에 청홍의 새옷을 입힌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의류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淨化를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게 하는 신념체계도 나타낸다. 食生活에서 보면 초봄에 떡, 엿, 백집(百家)의 밥 등을 먹게 하는데, 이것 역시 아동에게 유익한 식품공급과 아동의 健康을 비는 신념체계와 맞물려 있다. 초여름에는 石楠잎을 붙인 떡, 검은 콩, 미나리 등 여름철 健康維持에 요긴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공급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아동관련 풍속을 보면 봉숭아물들이기에서 백반은 止血과 消毒의 효과가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에 상처가 덧나는 것을 방지해 주고, 단오의 부채는 여름철 위생과 장마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며, 창포탕은 葛蒲의 香과 藥效로 여름철 건강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아동관련 세시풍속은 계절의 변화에서 아동의 健康을 지킬 수 있는 物理的 側面의 保護機能을 儀禮化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시풍속에 나타난 아동양육의 心理的 側面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설날의 떡국과 除夕의 守歲는 아동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時間觀念과 그 經過의 의미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쉽게 내면화할 수 있게 해주어 개념의 학습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웅치기,葫蘆버리기, 연날리기 등은 모두 度厄행위로, 이를 통해서 아동은 심리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燃燈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봄철 놀이로서의 팔

랑개비와 姑姑妹라는 놀이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는 물건을 가지고 놀게 함으로써 豐饒와 健康을 祈願하는 아동보호의 신념이 발견된다. 그밖의 아동 참여 풍속에서는 성인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편안한 놀이상황에서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며, 또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마련하고 있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심리적 보호 기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선시대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문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헌상의 제약을 갖는다. 즉 세시풍속이 信仰儀禮的 행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儀禮的 성격에서 벗어나는 행태들은 기록에서 배제되어 있어, 朝鮮時代의 兒童養育의 保護나 支持的 行態를 충분히 파악하였다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朝鮮時代의 다른 문헌기록의 보완이 필요하며, 또 그 以前 時代로 거슬러 올라가 아동양육의 傳承의 過程을 규명하는 후속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 나타난 전통사회의 아동양육에 대한 信念體系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유지 혹은 변형되었는가에 관한 규명을 통해서 아동양육의 문화적 맥락 이해에 접근해 가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1) 朝鮮光文會發刊 東國歲時記·沔陽歲時記·京都雜志 合編
- 2) 金玉姬(1985).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中心한 女性教訓書의 內容分析에 關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용덕(1994). 韓國의 風俗史, 서울: 밀알.
- 4) 金惠善·林惠仁(1993). 韓國家庭生活史,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5) 陸楨培(1987). 傳統文化,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 6) 孫直銖(1981). 朝鮮時代 女性教育研究,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7) _____(1993). 士小節에 나타난 傳統 家庭教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3-18,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47-131.

- 8) 愼良宰(1994). 高麗時代 兒童養育 研究—高麗史를 中心으로—. 大韓가정학회지 32, 149-162.
- 9) 禹英姬(1989). 朝鮮時代 教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願庵家訓을 中心으로—.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10) 柳點淑(1991). 朝鮮後期 童蒙教材의 內容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11) _____(1987). 士小節에 나타난 兒童訓育法 考察. 大韓가정학회지 25, 141-152.
- 12) 李杜鉉·張數根·李光奎(1983). 韓國民俗學概說. 서울: 학문사.
- 13) 李錫浩 譯(1991). 朝鮮歲時記. 서울: 동문선.
- 14) 李貞德·宋 洵(1993).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教育에 關한 研究. 大韓가정학회지 31, 157-168.
- 15) 任東權(1989). 韓國歲時風俗研究. 서울: 집문당.
- 16) 崔吉城(1983). 不淨 觀念으로 본 韓國人의 意識構造, 韓相福 編,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심설당.
- 17) 馮友蘭(1977). 中國哲學史, 鄭仁在 譯. 서울: 형설출판사.
- 18)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19) Gecas V.(1976). The socialization and child care roles In F.I.Nye(ed.)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20) Grusec, J.E. & H. Lytton(1988). Social development :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Y. : Springer-Verlag.
- 21) Holden, G.W. & Edward, L.(1989).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 instruments,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st Bulletin* 106, 29-58.
- 22) LaRossa, R. & D.C. Reitzes(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55-468.
- 23) Leach, E.(1976). Culture and communication : the logic by which symbols are connect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4) Moghaddam, F.M.(1987). Psychology in the three worlds. *American Psychologist* 42, 912-920.
- 25) Nsamenang, A.B.(1992). Human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 A Third world perspective, N. Y. : Sage Publication, 1992.